

# 여중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의 매개효과검증

## The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of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and Schizophrenic Personality Trai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Middle School Girls

임지영  
호서대학교

Jeeyoung Lim(littleicemachine@hoseo.edu)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 및 충청지역에서 연구에 참가한 여중생 3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애적 성향, 분열형 성격특성,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도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애적 성향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분열형 성격특성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높은 여학생들을 위한 임상적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 중심어 : | 스마트폰 중독 | 관계적 공격성 | 자기애적 성향 | 분열형 성격특성 | 여중생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and schizophrenic personality trai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middle school girls. Data from 378 girls in Kyungki and Chungchoeng areas were analyzed.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martphone addicti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schizophrenic personality traits and relational aggression. Both personality traits also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lational aggression. Second,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Third, schizophrenic personality trait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Finally, clinical implications for adolescent girls at high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 keyword : | Smartphone Addiction | Relational Aggression |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 Schizophrenic Personality Traits | Middle School Girls |

## I. 서론

최근 스마트기기 보급 증가에 따른 과다사용으로 전 연령대의 스마트폰 중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1]에 따르면 청소년 중독위험군은 29.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성인 중독위험군의 약 2.6배에 이르러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과 대처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게임,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매체로서 스마트폰 중독 개념은 인터넷 중독보다 늦게 등장하였으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여 여러 정신건강 요인들과의 관련성이 제시되고 있고 있다[2].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들은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외로움, 자기통제력 저하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나타내며[2], 대인관계에서 수용적이고 우호적이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불신과 경계, 경쟁적인 성향을 보인다[3]. 특히 청소년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왕따 등의 문제가 근래에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외현적 공격성보다는 뒷말하기, 소문 퍼뜨리기, 우정관계 조작 등 또래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4] 스마트폰은 SNS의 사용확대와 더불어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의 표출 창구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으로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변인은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이다. 적절한 수준의 자기애적 성향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과도한 수준의 자기애적 성향은 자신에 대한 과장된 지각, 우월감, 타인의 관심과 과도한 찬사에 대한 요구 등의 특성을 보이게 되며 심각한 경우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분류될 수 있다[5]. 최근의 연구들은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애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6][7].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과시하고 주목과 찬사를 받고 싶어하는 자기애적 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SNS는 자기를 나타내 보

일 수 있는 유용한 매체이므로 SNS 중독경향은 자기애적 성향과 관련이 높다[8]. 이렇듯 관심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과장된 자기상은 현실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위협받기 쉬우므로 분노와 적대감을 쉽게 느끼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대인관계 갈등과 부적응을 낳을 수 있다[9].

분열형 성격특성은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나 양극성 장애, 강박성 장애 등과 관련되어 있는 성격특성으로서 최근에는 일반인의 경미한 증상부터 임상집단의 정신병 경향성에 이르기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10]. 분열형 성격특성은 관계사고, 마술적인 사고, 유별난 지각 경험, 편집증적 사고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11]. 스마트폰 중독과 분열형 성격특성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연구는 없었으나,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분열형 성격특성을 보이며[12][13],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심리적인 불안정감과 고립, 현실성의 결핍, 망상이나 환각을 느끼는 정도, 대인관계에서 불신과 의심 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들[3][14]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분열형 성격특성의 관련성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열형 성격특성은 현실 검증력의 손상, 관계사고 등으로 인해 공격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5][16].

이와 같은 선행 연구보고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지를 각각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은 의심과 편집성 사고, 대인관계 문제와 같은 일부 특징을 공통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나 그 원인이 다르며 성격장애 진단 기준 상에서도 각기 다른 군집에 포함되는 이질적 특성으로서[5] 인과적 관련성을 가정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각각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남학생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높고 학령별로는 중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보고[1]를 토대로 여중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스마트폰 중독은 분열형 성격특성, 자기애적 성향,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과 상관이 있는가?
- 연구문제 2. 스마트폰 중독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애적 성향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 연구문제 3. 스마트폰 중독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열형 성격특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스마트폰 중독

정신건강의학분야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지나친 사용과 몰입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는 상태’이다[17]. 스마트폰 중독은 병적 도박과 비슷한 행위중독으로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일상생활장애’, 현실보다는 가상공간에서의 관계를 선호하는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스마트폰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감을 얻는 ‘내성’,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 감소하게 되면 불안, 초조, 강박적 증상이 생기는 ‘금단’의 4가지 차원으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18].

스마트폰 중독은 특히 청소년 및 청년층의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장년층에 비해 사이버 언어폭력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19].

### 2. 자기애적 성향

자기애적 성향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며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20]. 그러나 과도한 자기몰입에서 비롯되는 부적응적인 자기애적 특성은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웅대한 자기상, 자신에 대한 과도한 칭찬과 주목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자기중심성, 과장된 자기우월감과 특권의식, 타인에 대한 공감결여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21]. 따라서 이러한 부적응적인 자기애적 성향은 그 증상이 지속될 경우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과 대인관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22].

### 3. 분열형 성격특성

분열형 성격특성은 일반인에서의 불특정한 정신병 경향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된 이후 일반인으로부터 정신장애에 이르는 연속선상에서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받는 성격특성이다[10]. 분열형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은 다음 증상들 중 몇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관계사고, 마술적인 사고, 유별난 지각경험, 의심이나 편집증적 사고, 부적절하거나 제한된 정동, 친한 사람의 부족, 사회적 불안, 기이한 사고/언어/행동이 이에 포함된다[11]. 관계사고란 우연한 사고나 외부적 사건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술적인 사고란 미신, 천리안, 텔레파시, 육감 등에 대한 믿음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 느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되며, 청소년의 경우 기이한 공상에 몰두하기도 한다. 유별난 지각경험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끼고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거나 시선집착을 피하고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 안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나타난다.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분열형 성격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과 무망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으며,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이 크고, 사회적 적응력이 낮다고 보고되었다[10][23].

### 4. 관계적 공격성

공격성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24]. 공격성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는데,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공격성의 형태(form)와 기능(function)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25]. 공격성의 형태를 중심으로 외현적 공격성(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위협)과 관계적 공격성(관계에 대한 손상 또는 관계를 손상시키려는 위협)으로 분류하며, 공격성의 기능을 중심으

로 주도적 공격성(성취하거나 빼앗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격)과 반응적 공격성(공격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충동적이며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분류한다. 공격성의 형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나뉜 유형들을 조합하여 Marsee 등[25]은 공격성을 주도적 외현적, 주도적 관계적, 반응적 외현적,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의 4가지 차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또래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를 개발하였다.

공격성의 형태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oukas 등[26]의 연구에서는 타인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회 평가 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 5.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의 매개역할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7]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28,29]은 한결같이 스마트폰 중독이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을 모두 증가시킴을 보고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적 모습은 악성댓글, 유언비어 유포, 욕설, 저주, 협박, 사이버 성폭력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격성의 차원에 따른 특징을 토대로 본다면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다 하겠다[30].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고, 특히 갈등 다루기 능력이 낮다는 연구보고[31]도 이러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애적 성향의 관련성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6]와 국외 연구들[32][33]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특히 SNS 중독은 자기애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8][34].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주 이용기능은 SNS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SNS 공간에서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활동할 수 있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경향, 특히 SNS 중독경향은 자기애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애적 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적이라는 점은 많은

임상적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35][36].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위협을 느낄 때,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비난, 거절을 당했다고 지각하는 경우,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분노, 적대감, 보복 등의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37][38].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명숙과 어주경[36]의 연구는 남녀 학생 모두 자기애적 성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공격성은 물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분열형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국내외 학술DB(KERIS, Google Scholar등)에서 찾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관련 분야 연구보고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성격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12][13]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자율성과 연대감이 낮은 반면 자기초월성이 높아 비논리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미성숙하고 비현실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분열형 성격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대학생으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집단과 일반집단 간의 MMPI-2 프로파일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2] 이러한 증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열형 성격특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열형 성격특성과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없으나 전반적인 공격성 관련 연구들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다. 지각된 위협이나 촉발자극에 대한 분노, 방어적 반응으로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정보처리과정에 결함이 있으며[39] 이로 인해 사회적 단서를 부호화하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게 되어[40] 비정상적인 지각적 경험, 관계사고, 의심, 편집증적 사고 등과 같은 분열형 성격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41]. Meloy[15]는 위협이나 자극에 대해 공격적 반응을 보일 때 고조되고 분산된 감각인식, 현실 검증력의 손상, 관계사고와 같은 분열형 성격특성의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러한 공격적 반응이 충동성, 사회적 불안, 고독감, 낮은 대인관계의 질, 분열형 성격특성과 관련됨을 밝혔다

[41][42]. 이런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분열형 성격특성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애적 성향을 매개로 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스마트폰 중독은 분열형 성격특성을 매개로 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연구모형으로는 스마트폰 중독이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침과 더불어 자기애적 성향을 통해 또는 분열형 성격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자기애적 성향의 매개효과 검증모형은 [그림 1], 분열형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검증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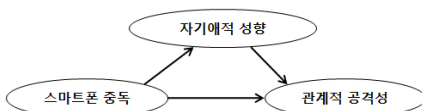


그림 1. 자기애적 성향의 매개효과 검증모형



그림 2. 분열형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검증모형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협조를 얻은 경기 및 충청지역 4개 중학교 여중생 391명을 대상으로 상담교사가 특별활동시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설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연구 목적 및 내용, 개인정보의 유출이 없다는 점, 응답 도중 연구 참여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응답이 누락된 문항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13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378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 3. 연구도구

#### 3.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43]이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인터넷 중독척도와 휴대폰 중독척도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스마트폰 중독 특성을 나타내는 4개의 하위요인(일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을 포함하여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범위에서 응답하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전체척도 .82, 하위척도는 .62~.74였다.

#### 3.2 자기애적 성향

자기애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황순택[44]이 개발한 자기애 성격장애척도(NPDS)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에 대해 4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향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한수정[45]이 요인분석한 결과, 자기중심성, 웅대성/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과장된 자기지각의 3요인이 추출되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진옥[4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수준에 적합한 정교한 평가를 위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여중생 대상의 본 연구에서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내적합치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전체척도 .85, 하위척도는 .75~.78이었다.

#### 3.3 분열형 성격특성

분열형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Raine과 Benishay[47]가 개발한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을 윤선아[10]

가 변인, 타당화한 한국판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관계사고, 마술적 사고와 같은 인지 지각적 결합, 가까운 친구의 부재, 사회적 불안, 편집증적 사고와 같은 대인관계의 결합, 그리고 언어, 행동, 사고에 있어서의 괴이함과 같은 기능외해를 측정하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예'로 응답한 문항의 개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열형 성격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내적합치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전체척도 .76, 하위척도는 .61~.67이었다.

### 3.4 관계성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see 등[25]이 제작한 또래갈등척도를 한영경[4]이 변안한 척도에 포함된 관계적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성의 기능 차원을 고려하여 주동적 관계적 공격성(10문항)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10문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확실히 그렇다)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전체척도 .87, 하위척도는 .80~.81이었다.

##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기초자료분석을 위해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자료의 정규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48]. 둘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계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는 AMOS 18.0을 사용하였고,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정 기준은 TLI, CFI, NFI 값이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값이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이면 양호한 수준, .08~.1이면 수용가능한 범위로 판단하였다[49].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50]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연구대상자들의 학년분포는 1학년 170명(45.0%), 2학년 115명(30.4%), 3학년 93명(24.6%)이었다. 주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시간~3시간 미만(158명, 41.8%)과 1시간~2시간 미만(94명, 24.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측정변인들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왜도( $\leq 1.78$ )와 첨도( $\leq 3.48$ )의 절대값은 정규분포판단에 무리가 없었다[48].

### 2. 상관관계

[표 1]에는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애적 성향( $r=.335, p<.001$ ), 분열형 성격특성( $r=.125, p<.05$ ), 관계적 공격성( $r=.300, p<.0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은 관계적 공격성과 각각 .571( $p<.001$ )과 .531( $p<.001$ )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주요변인들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일부 변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099( $p<.05$ )~.614( $p<.001$ )의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 3. 측정모형의 검증

스마트폰 중독이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이 각각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자기애적 성향,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M	SD	자기애적 성향	자기 중심성	용대성 칭찬주목	과장된 자기지각	분열형 성격특성	인지지각 결함	대인관계 결함	기능외해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반응적 관계적
스마트폰 중독	38.25	6.29	.335***	.391***	.220***	.272***	.125*	.106*	.128*	.019	.300***	.312***	.251***
내성	12.01	1.56	.344***	.407***	.225***	.229***	.087	.076	.099*	-.019	.308***	.325***	.264***
금단	11.66	1.31	.331***	.386***	.222***	.252***	.120*	.109*	.126*	.031	.289***	.326***	.228***
가상세계지향	3.24	1.75	.320***	.322***	.261***	.240***	.114*	.062	.133**	.035	.196***	.170*	.202***
일상생활장애	7.39	2.72	.267***	.328***	.158**	.232***	.101*	.128*	.080	.002	.257***	.288***	.211***
자기애적 성향	40.50	12.30		.816***	.837***	.601***	.285***	.259***	.352***	.067	.571***	.533***	.543***
자기중심성	17.12	5.78			.728***	.481***	.299***	.314***	.362***	.040	.645***	.614***	.603***
용대성칭찬주목	19.75	6.47				.475***	.227***	.174**	.292***	.069	.445***	.396***	.438***
과장된 자기지각	3.62	1.62					.189***	.148**	.212***	.091	.260***	.278***	.221***
분열형 성격특성	6.25	3.24						.774***	.798***	.629***	.532***	.425***	.561***
인지지각결함	1.92	1.58							.516***	.228***	.509***	.418***	.527***
대인관계결함	2.92	1.66								.369***	.552***	.431***	.590***
기능외해	1.16	1.05									.145*	.083	.179***
관계적 공격성	26.21	5.52										.920**	.952***
주도적 관계적	12.58	2.55											.772***
반응적 관계적	13.62	3.3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연구모형	$\chi^2(df)$	TLI	CFI	NFI	RMSEA
자기애적 성향 포함 모형	93.307(24)***	.951	.967	.957	.088
분열형 성격특성 포함 모형	84.590(24)***	.951	.967	.955	.082

\*\*\* $p < .001$

이 적합도는 TLI(.951), CFI(.967), NFI(.957)가 .90이상, RMSEA(.088)는 .10이하로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49].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스마트폰 중독 .71~.93, 자기애적 성향 .49~.99, 관계적 공격성 .87~.89였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스마트폰 중독, 분열형 성격특성,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합도는 TLI(.951), CFI(.967), NFI(.955)가 .90이상, RMSEA(.082)는 .10이하로서 양호하였다 (홍세희, 2000).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스마트폰 중독 .71~.94, 분열형 성격특성 .37~.80, 관계적 공격성 .78~.98이었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 4.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애적 성향의 매개효과 분석

자기애적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계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애적 성향의 매개모형은  $\chi^2$ 값이 93.307( $p < .001$ )이고, 적합도는 TLI(.951), CFI(.967), NFI(.957)가 좋은 적합도의 기준치인 .90이상을 충족하였으며, RMSEA(.088)는 수용가능한 적합도의 기준치인 .10이하였다[49]. 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애적 성향( $\beta = .40, p < .001$ )에, 자기애적 성향은 관계적 공격성( $\beta = .66, p < .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스마트폰 중독은 관계적 공격성( $\beta = .08, p > .05$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 [50]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중독→자기애적 성향→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적 성향의 매개효과( $\beta = .27, p < .01$ )는 Lower Bounds값이 .20, Upper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연구모형	$\chi^2(df)$	TLI	CFI	NFI	RMSEA
자기애적 성향의 매개모형	93.307(24)***	.951	.967	.957	.088
분열형 성격특성의 매개모형	84.590(24)***	.951	.967	.955	.08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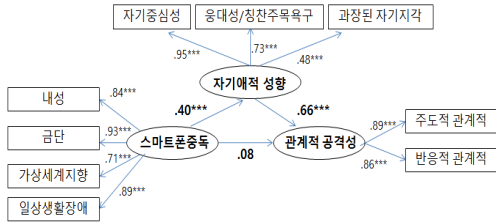


그림 3. 자기애적 성향의 매개모형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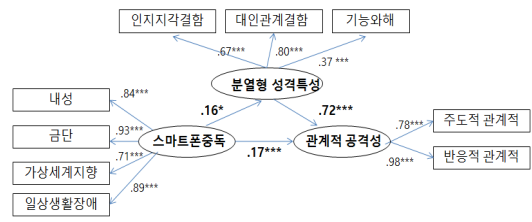


그림 4. 분열형 성격특성의 매개모형 (\* $p < .05$ , \*\*\*) $p < .001$

Bounds 값은 .34로서, 두 값의 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향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완전매개변수로 확인되었다. 연구모형의 다중상관치를 검토해보면,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애적 성향은 관계적 공격성 변량의 48.8%를 설명하였다.

서, 0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분열형 성격특성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변수로 확인되었다. 연구모형의 다중상관치를 검토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애적 성향은 관계적 공격성 변량의 58.2%를 설명하였다.

5.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분열형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분석

분열형 성격특성이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계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열형 성격특성의 매개모형은  $\chi^2$ 값이 84.590( $p < .001$ )이고, 적합도는 TLI(.951), CFI(.967), NFI(.955)가 좋은 적합도의 기준치( $\geq .90$  이상)를 충족하였으며, RMSEA(.082)는 수용가능한 적합도( $\leq .10$ )였다[49]. 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은 분열형 성격특성( $\beta$ -.16,  $p < .05$ )에, 분열형 성격특성은 관계적 공격성( $\beta$ -.72,  $p < .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관계적 공격성( $\beta$ -.17,  $p < .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Bootstrap 검증[50] 결과, 스마트폰중독→분열형 성격특성→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열형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beta$ -.12,  $p < .01$ )는 Lower Bounds 값이 .05, Upper Bounds 값은 .19로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중독이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애적 성향, 분열형 성격특성,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애적 성향과 분열형 성격특성도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 관련 선행연구들[6][13][28][29][32][33][36]과 맥을 같이 하였다. 이런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행동경향,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과도한 갈망, 웅대한 자기상에 대한 집착, 무관한 것들을 관련짓는 관계사고, 천리안이나 육감 등에 의존하는 마술적 사고, 의심과 편견중적 사고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래집단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애적 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기중심성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및 관계적 공격성과 상대적으로 더 큰 정적 상관을 나타낸 점은 자기애적 성향의 특징 중 자기중심성이 SNS 중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보고[8][34]와 유사한 결과로서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자기방식만을 고집하는 성향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열형 성격특성의 하위요인 중에는 대인관계결함이 스마트폰 중독 및 관계적 공격성과 상대적으로 더 큰 정적 상관을 나타내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고 의심과 불신, 편집증적 경향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애적 성향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 경향을 보이는 여학생들이 스마트폰 안의 세상에서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하고 자기가 최대한 인정받는 듯한 자기도취에 빠지게 되어[6], 자신의 웅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웅대성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 우정관계를 조작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열형 성격특성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높은 여학생들이 현실성의 결핍[14] 심리적 고립, 인지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자기 자신과 타인, 관계, 문제 해결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커져서[51]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상대에 대해 뒷말하기, 소문과 거짓말 퍼뜨리기, 또래집단에서 제외시키기, 친구 빼앗기 등과 같은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큰 여학생들을 위한 임상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큰 여학생들은 자기애적 성향이 있어서 항상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우월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

고경향을 지니므로[52] 이런 사고방식을 교정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감소시키는 인지치료적 접근이 유용할 것이다. 아울러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며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52]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감훈련[53]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있는 여학생들은 자신과 무관한 일을 자신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개인화, 정서적 느낌에 따라 상황의 의미를 판단하는 정서적 추론, 무관한 사건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임의적 추론 등의 인지적 오류를 통해서 관계망상적 사고, 마술적 사고, 괴이한 믿음 등 분열형 성격특성을 나타내게 되므로 정서적 느낌보다는 객관적 현실에 의해 자신의 생각을 평가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훈련[52]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여중생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성별이나 학령에 따른 검증이 불가능했던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대상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전반적인 스마트폰 중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남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주 이용기능이 SNS라는 조사결과[31]를 고려할 때, SNS 주 이용집단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향성에 특화된 척도를 사용한다면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른 관계적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의사소통이나 갈등관리와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적 요소를 포함하여 공격성의 여러 유형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2015.
- [2] 정구철 “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및

-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pp.655-665, 2016.
- [3] 신용민, 이봉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유형에 따른 온-오프라인 대인관계성향,” 청소년문화포럼, 제44권, pp.68-95, 2015.
- [4] 한영경,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Washi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4.
- [6] 류경희, 홍혜영,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8호, pp.157-183, 2014.
- [7] 정구철, 문종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9호, pp.146-156, 2015.
- [8] 조성현, 서경현, “SNS 중독 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18권, 제1호, pp.239-250, 2013.
- [9] 한수정, 권식만,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2000.
- [10] 윤선아, “한국판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rief SPQB)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9권, 제2호, pp.491-504, 2010.
- [11] A. Raine, “The SPQ: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schizotypal personality based on DSM-III-R criteria,” *Schizotypal Bulletin*, Vol.17, pp.555-564, 1991.
- [12] S. K. Lee, H. S. Lee, B. K. Son, H. P. Lee, and S. J. Kwon, “Different personality profiles among Internet game addiction, alcohol use, and smoking behavior in Korean adolescent sample,” *Journal of Korean Addiction Psychiatry*, Vol.9, No.1, pp.3-8, 2005.
- [13] 전경자, 손신영, 소애영, 이꽃매, 박선희,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흡연,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제37권, 제6호, pp.872-882, 2007.
- [14] 조수연, *NEO 청소년 성격 특성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매개 변인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5] J. R. Meloy, *The Psychopathic Mind: Origins, Dynamics, and Treatment*, Northvale: Jason Aronson, 1988.
- [16] A. Rain, K. A. Dodge, R. Loeber, L. Gatzke-Kopp, D. Lynam, and C. Reynolds,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 boys,” *Aggressive Behavior*, Vol.32, pp.159-171, 2006.
- [17] 박성복, 황하성,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 대학생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4호, pp.289-311, 2014.
- [18] 신광우, 김동일, 정여주,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 [19] 이정기, “청소년의 성향적 휴대폰 이용동기와 중독: 언어폭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1권, 제2호, pp.365-401, 2011.
- [20] C. L. Lasch,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Norton, 1976.
- [21] 정남운,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13권, 제2호, pp.221-237, 2001.
- [22] R. F. Baumeister, B. J. Bushman, and W. K. Campbell,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9, No.1, pp.26-30,

- 2000.
- [23] H. O. Moon, I. H. Yang, H. P. Lee, M. E. Kim, and W. Ham, "The Preliminary Study on the Validation of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Korean Vers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137, pp.329-343, 1997.
- [24] L. Berkowitz, "The Concept of Aggression. In P.F.Brain & D. Benton (Eds.), *M 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Aggression Research* (pp.143-161)," Amsterdam: Elsevier/North Holland Biomedical Press, 1981.
- [25] M. A. Marsee, C. T. Barry, P. J. Frick, E. R. Kimonis, L. C. Munoz, and K. J. Aucoin, "Assessing Aggression in at-risk youth using the Peer Conflict Sca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evaluation of factorial invariance across gende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7.
- [26] A. Loukas, S. K. Paulos, and S. Robinson,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4, No.4, pp.335-345, 2005.
- [27] 신성철, 백석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pp.345-362, 2013.
- [28] 박은민, 박기희, "부모 양육태도와 스마트폰중독 관계에서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09-224, 2014.
- [29] 선혁규, 백중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중학생의 우울,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20권, 제1호, pp.107-123, 2015.
- [30] 김현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폭력과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1] 박순주, 권민아, 백민주, 한나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289-297, 2014.
- [32] A. M. Manago, M. B. Graham, P. M. Greenfield, and G. Salimkham, "Self-presentation and gender on My Spa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9, pp.446-458, 2008.
- [33] S. Mehdizadeh, "Self Presentation: Narcissism and Self Esteem on Facebook," *Cyber Psychology, Behavior, & Social Networking*, Vol.13, No.4, pp.357-364, 2010.
- [34] D. J. Kuss and M. D. Griffiths,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8, No.9, pp.3528-3552, 2011.
- [35] 서수균, 권석만,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1권, 제4호, pp.809-826, 2002.
- [36] 홍명숙, 어주경,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에,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4권, 제6호, pp.3911-3928, 2013.
- [37] 길주현, 오경자, "자기애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7권, 제4호, pp.911-924, 2008.
- [38] 이은진, 김영윤, 김범준,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제3호, pp.447-468, 2011.
- [39] N. R. Crick and K. A. Dodge,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Vol.67, pp.993-1002, 1996.
- [40] A. Raine, C. Reynolds, T. Lencz, A. Scerbo, N. Triphon, and D. Kim, "Cognitive - perceptual, interpersonal, and disorganized features of schizotypal personality," *Schizophrenia Bulletin*,

Vol.20, pp.191-201, 1994.

[41] A. Raine, K. Dodge, R. Loeber, L. Gatzke-Kopp, D. Lynam, C. Reynolds, M. Stouthamer-Loeber, and J. Liu, "The Reactive - 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 Boys," *Aggressive Behavior*, Vol.32, pp.159-171, 2006.

[42] Y. Xu and Z. Zhang, "Distinguishing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Chines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36, pp.539-552, 2008.

[4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2012.

[44] 황순택,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45] 한수정, *자기에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46] 강진옥, *청소년의 내, 외현적 자기에와 자기개념 명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7] A. Raine and D. Benishay, "The SPQ-B: a brief screening instrument for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Vol.9, pp.346-355, 1995.

[48] P. J. Curran, S. G. West, and J. F. Finch,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Vol.1, pp.16-29, 1996.

[49] 홍세희, "구조 방정식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50] P. E. Shrout and N. Bolger,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7, pp.422-445, 2002.

[51] 백현기, 하태현, "마음의 창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연구," *디지털융복합*

연구, 제14권, 제4호, pp.239-249, 2016.

[52]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2판*, 서울: 학지사, 2014.

[53] G. F. Barrett-Lennard, "The empathy ssca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9, pp.91-100, 1981.

### 저 자 소 개

임 지 영(Jeeyoung Lim)

종신회원



▪ 현재 :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  
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심리평가 및 상담